

경쟁사 ‘애플’도 고객… 기술력으로 OLED 시장 휩쓸다

③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폴더블 기술을 앞세워 애플을 고객으로 확보하고 노트북용 OLED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하반기 출시되는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에 화면을 공급하고 아산 8.6세대 라인 가동으로 노트북용 패널 양산에도 돌입했다. 갤럭시를 넘어 아이폰까지 고객을 넓히고 스마트폰에서 노트북으로 적용 제품군도 확대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30년 약 30조원 규모로 성장할 중대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20일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의 ‘2026 중대형 OLED 디스플레이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중대형 OLED 시장은 올해 약 115억달러에서 2030년 약 200억달러(약 30조원)로 확대될 전망이다. 4년간 약 74% 성장하는 것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14.8%에 달한다. 중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은 아직 액정표시장치(LCD)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고해상도와 고주사율 등 프리미엄 성능 수요가 늘면서 OLED 채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 갤럭시와 아이폰 모두 공급…커지는 폴더블 시장

삼성디스플레이는 세계 최초로 폴더블 OLED를 양산한 이후 갤럭시 Z 시리즈에 패널을 공급해 왔다. 오는 22일 런던 갤럭시 언팩에서 공개되는 갤럭시 Z 폴드8은 기존보다 가로가 넓고 세로가 짧은 이른바 ‘여권형’ 디자인을 채택할 전망이다. 새 화면비의 내외부 패널에 티타늄 기반 디스플레이 구조를 적용해 화면 주름을 줄이고 내구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면비 변경과 주름 개선은 모두 패널 설계 기술에 달려 있어 신제품 완성도를 삼성디스플레이의 기술력이 좌우하는 구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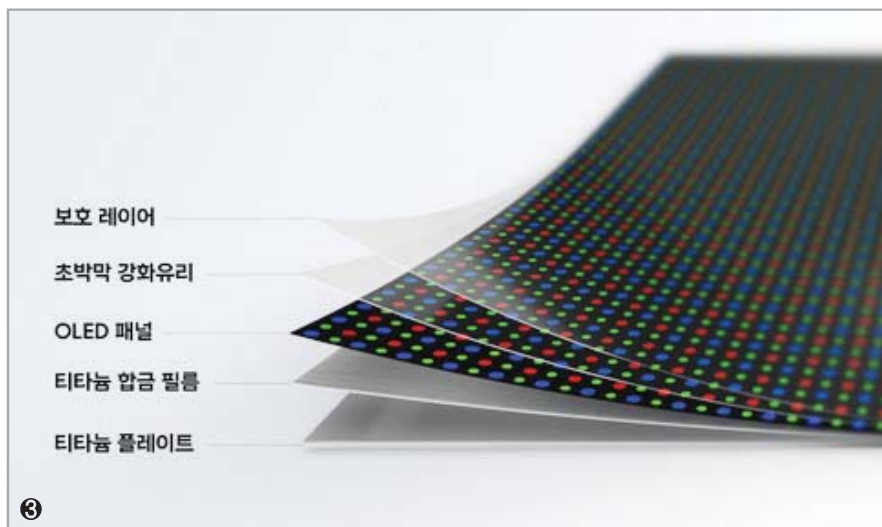
애플이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첫 폴더블 아이폰에도 삼성디스플레이 패널이 탑재된다. 하반기부터 패널 조달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옴디아 집계 기준 지난해 아이폰용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유율 56.8%로 1위를 기록한 애플의 최대 디스플레이 공급사다. 모회사 삼성전자가 완제품 시장에서 애플과 경쟁하는 것과 달리 부품에서는 갤럭시와 아이폰 중 어느 쪽 판매가 늘어도 삼성디스플레이가 패널을 공급하는 구조다.

애플의 진입으로 폴더블 시장 자체도 커지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의 2분기 폴더블-롤러블 디스플레이 출하량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폴더블 스마트폰 패널 출하량은 약 2750만장으로 전년 대비 24% 늘고 패널 매출은 약 44억달러로 48% 증가할 전망이다. 단순한 물량 회복이 아니라 평균판매가격(ASP) 상승과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가 시장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첫 폴더블 아이폰은 출시 첫해 폴더블폰 시장에서 약 28%의 점유율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물량이 아닌 단가가 이익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반도체에서 시작된 슈퍼사이클 흐름이 디스플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 갤럭시 Z 폴드8과 폴더블 아이폰이 잇달아 출시되면 삼성디



중대형 OLED 시장 선점 박차… 2030년 약 30조 규모 전망
내일 런던서 Z 폴드 8 공개, 티타늄 디스플레이로 내구성 ↑
애플 첫 폴더블 폰에도 패널 탑재… 아이폰 최고 공급자

아산 8.6세대 IT용 OLED 라인으로 노트북·태블릿 공략
1분기 매출 6.7조, 영업이익 4000억… 3분기 반등 전 과도기



스스플레이는 세계 프리미엄 폴더블폰 양대 진영에 모두 패널을 공급하게 된다.

◆ 8.6세대 라인 가동…노트북과 모니터로 영토 확장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에 이어 중대형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4조1000억원을 투자한 아산 8.6세대 IT용 OLED 라인 양산을 시작으로 노트북과 태블릿용 패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8.6세대 라인은 기존 6세대 대비 유리원장 면적이 두 배 이상 넓어 노트북용 패널 생산 효율이

높다. 스마트폰 신제품 주기에 실적이 좌우되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계절적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노트북용 탠덤 OLED를 글로벌 PC 제조업체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유기 발광층을 두 층으로 쌓는 탠덤 구조를 적용해 밝기는 최대 1600니트로 높이고 수명은 기존 단일 발광층 패널의 2배 이상으로 늘어 영상전자표준위원회(VESA)의 신설 최고 등급 인증인 ‘디스플레이HDR 트루블랙 1400’ 기준을

① 이청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가 2일 충남 아산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KTV 국민방송 생방송 캡처화면

② 생성형 AI가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사업 확대를 향상화한 이미지.

③ 플렉스 티타늄 디스플레이 이미지. /삼성전자

④ 폴더블 아이폰 예상 이미지. /IT팁스터 애플 사이클 X 캡처

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이 삼성전자의 차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 폴드8’로 추정되는 제품을 손에 들고 있다. /제이홉 인스타그램 캡처

충족했다. 이 패널을 탑재한 레노버 노트북이 이달 첫 인증을 받았고 하반기부터 에이수스와 델 테크놀로지스 등으로 탑재가 확대될 예정이다.

모니터용 OLED에서는 성과가 나오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1분기 게이밍 모니터용 OLED 수요 호조로 대형 사업에서 안정적인 판매를 유지했다. 유비리서치는 게이밍과 콘텐츠 소비 환경에서 OLED의 고주사율과 빠른 응답속도 등이 소비자 체감 가치로 직결된다는 점을 들어 모니터를 가장 빠른 성장 축으로 지목했다. 2030년에는 모니터용 OLED가 전체 중대형 OLED 시장의 약 2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생산 기반도 유리하다. 중대형 OLED 생산은 한국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9인치 이상 대형 OLED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92.4%에 달했고 TV용 OLED 패널은 전량 한국에서 생산됐다.

◆ 중소형 비수기와 중국 추격…하반기가 분수령

관건은 하반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올해 1분기 매출 6조7000억원과 영업이익 4000억원을 기록했다. 중소형 패널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며 데다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고객사 수요가 줄면서 매출이 전분기 대비 29% 감소했다. 폴더블 패널 시장도 스마트폰 업체들의 재고 조정과 신제품 공백이 겹치며 1분기 출하량이 전년 동기 대비 7% 줄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1분기 시장을 본격 반등을 앞둔 과도기로 분석했다. 갤럭시 Z 폴드8과 폴더블 아이폰용 패널 공급이 본격화하는 3분기부터 실적 반등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트북용 OLED의 확산 속도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유비리서치에 따르면 노트북과 태블릿PC는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등 핵심 부품의 원가비중이 커 디스플레이에서 비용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OLED 탑재로 높아진 가격을 소비자가 받아들이지가 시장 확산의 관건으로 꼽힌다.

결국 애플 공급 확대와 노트북용 OLED 시장 개화를 성장동력으로 삼는 가운데 중국의 추격 속에서 기술 격차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중장기 경쟁력을 좌우할 전망이다.

정용욱 삼성디스플레이 IT전략마케팅팀장 상무는 트루블랙 1400 기준을 충족한 노트북용 OLED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소재 기술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며 “고성능 OLED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